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10 | Vol. 245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법왕사
조계종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기도의 발원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공덕 나누며 지혜와 용기와 원만성취를 함께 하겠습니다. 촛불을 켜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의식적인 행동의 중요함보다는 두 손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공덕으로 벗어나고 씻겨진 참 모습을 원하오니 태우시고 씻기시어 욕신이 거하는 또 다른 내가 지워지고 벗어나 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하사 모래알 같은 중생들이 팔만사천 부처님 법문 속에 몸과 정신을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제 마음밭을 고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방을 통해 안정된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돕게 하소서. 자비의 손길과 빛으로 그 마음을 쏘이시고 지극한 법향으로 지난 과오의 업을 지워 주소서. 신심으로 이 기도 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신 모든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공이 들게 하시고 윤행하는 행로 행로마다 부처님 함께 하시어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답게 본이 되는 방정한 자세 갖추게 하시고 진정한 빛과 법향을 풍기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기, 백고좌 법회도량 법왕사 불자들이 천일기도의 념을 세웠습니다. 기도동참 불자들의 십중 소구 소원이 자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로 묘력으로 원만성취될 수 있기를 합장발원 올립니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초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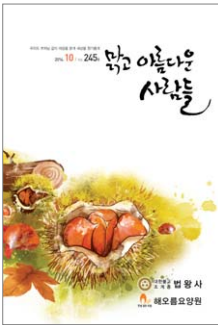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서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2014
10

Vol. 245호



- 04 깨침의 향기
평범한 삶 속에
모든 진리가 있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특집
원공당 정무대종사 추모 법어집 소개
- 10 비슬산방
참된 공(空)의 진리 · 실상 주지스님
- 12 불교상징의 세계
시대별로 본 승탑 · 조명래
- 16 법왕사 신도광장
비슬산 기슭에 심은 신앙심 · 승혜스님
- 20 명찰순례
마음을 여는 절 서산 상왕산 개심사
- 24 법왕사소식
- 27 법왕사게시판
- 28 해오름소식
- 29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s.or.kr | 발행일 불기 2558(서기 2014)년 10월 01일 발행 | 통권 245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운, 승혜, 자행, 강선옥, 반야화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삶 속에 모든 진리가 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천차만별로 움직이는
변화무쌍한 현상계
속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법칙에 따라
이 세계, 이 우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하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삼라만상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생성의 원인과 조건이 사라진다면 그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를 일러 부처님께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근본교리 중에 하나인 일체개고(一切皆苦) 즉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제행무상과 같은 것입니다. 제행무상이라는 말은 우주의 모든 사물은 변하며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구름은 나타났다가 흩어져서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어제의 구름이 오늘의 구름과 같지 않듯이 오늘 구름이 내일 구름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결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계가 카오스(chaos) 즉, 혼돈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조화와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차만별로 움직이는 변화무쌍한 현상계 속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법칙에 따라 이 세계, 그리고 우주조차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는 것은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어

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성에 비추어 볼 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의 과보(果報)를 받게 되는 것이며, 악행(惡行)을 저지른 사람은 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콩만 심는다고 많은 콩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콩이 싹이 트고 자라 많은 콩이 열리도록 하려면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원인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맺으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호두열매를 심었더니 몇 천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싹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생명의 경외로움과 아울러 어떤 원인이 결과를 맺으려면 주변의 여러 조건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가물면 콩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처럼 주변의 조건에 따라 원인은 좋은 결과, 또는 좋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전생의 인연에 따라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환경이라고 하는 주변 조건의 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향을 찢던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찢던 종이는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샅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샅된 사람이 될 것이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선우(善友)와 선지식(善知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도 쉽 없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차만별한 삼라만상의 변화를 유지시켜 주는 원리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그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법계에 그냥 있다하여 범주법계(法住法界)라고 합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래가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다. 여래께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은
영겁의 세월을 통해
삼천대천세계에 보화를
가득 채운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지만
깨달음은 찰나의
인연으로 가능합니다.

서 스스로 이 법을 깨달아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었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쉽게 분별하여 펼쳐 나타내는 것이다.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원인은 조건을 필요로 하고, 조건은 동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원인과 조건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이라 합니다. 상의상관성이란 두 개의 거울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 서로 비추고 비추어 두 개의 거울 속에는 수많은 거울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크게 보고 넓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의 세계는 공간적으로 우주의 광활함으로도 견줄 수 없고, 시간적으로는 영겁(永劫)의 세월로부터 부족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은 영겁의 세월을 통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보화를 가득 채운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지만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은 찰나의 인연으로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진리의 세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삶이요, 행복도 삶인 것처럼 우리의 사는 일상사 모두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보고 넓게 본다면 진리의 보주(寶珠)에 실을 꿰어 진리의 염주(念珠)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어 속에 가득한 스님의 은혜에 벅찬 감동이 일어납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의 열반 3주기를 맞아 정무 큰스님의 법어들을 모은 책이 발간되었다. 『인생졸업장』에 수록된 주옥 같은 법어들을 읽다보면 어느새 어두운 마음이 환희심으로 변할 것이다. 이에 원공문도회 회주이신 심경스님이 쓰신 『인생졸업장』의 발간사를 실으면서 정무 큰스님의 큰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편집자 주>



심경스님 / 원공문도회 회주

은사스님께

스님께서 “내가 사바세계 인연이 있어서 왔다가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가니 도솔천 내원궁에서 함께 만나자.”는 글을 남기시고 떠나신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스님께 잘못된 일만 떠오릅니다.

『초발심자경문』의 ‘안수정등(岸樹井藤)’에 관한 은사스님의 법어는 몸이 아파 법주사에 머무른 10대의 칠없던 제가 스님을 따라 용주사에서 출가사문의 길을 걷도록 했습니다.

늘 수행, 포교하시며 제자들을 경책하시던 엄하셨던 스승.

30여년 전, 죽음을 넘나들 정도로 많이 편찮으시면서도 병원에 가시려고는 않으시고 하찮은 어린 제자에게 병이 오를까 가까이 못 오게 호통치셨던 그 마음도 떠올라 더욱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시면 어디든 거절하는 일 없이 가셔서 법문하시고, 끊임 없는 수련회를 진행하시던 스님의 깊은 원력도 떠오릅니다.

법문을 즐겨듣고 잘 이해하신 분을 보시고 환희심에 가득차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스님.

평생을 소탈, 검약,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셨던 스님이 그립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학생입니다.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고 나태해져서 업살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 어디에도 의존증을 갖지 않고 젊으나 늙으나, 사바세계 불교대학 보살학과의 학생으로서 학생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입학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졸업을 할 것이요, 공부를 못해서 재수생이 된다면 처참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탈을 하라는 것이지 재수를 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하신 스님의 법어는 평생을 통해 세심하고 자상하게 풀어놓으신 가르침의 이정표를 말씀하신 듯 합니다.

자필로 정리하시고 자료를 복사해 손수 신도교재를 만드셨던 스님의 유품노트를 꺼내두고 복받치는 그리움에 눈물 짓습니다. 인생 · 수행 · 은혜 · 부모 · 질병 · 노후 · 죽음 등의 항목을 정해 잘라 붙인 종이, 밑줄 그어진 빨간 색 싸인펜 등의 흔적에서 삶의 각 터널을 만나 방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하셨을 스님의 고뇌와 자비가 그려집니다.

스님의 열반3주기를 맞아 일체존재를 한 생명으로 품으셨던 스님의 법어를 엮어 ‘인생졸업장’이라는 제목으로 담으며, 법어 속에 가득한 스님의 은혜에 벅찬 감동이 임니다. 법어집 『인생졸업장』이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발원합니다.

스님! 혹여, 법어집에 허물이 있다면 못한 제자의 뉘입니다. 아울러 법어집에 마음과 노력을 주신 모든 인연에 찬란한 자비광명을 내려주십시오.

원공당 정무대종사 추모 법어집

『인생졸업장』

구입문의 :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참된 공(空)의 진리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불교에서 ‘공(空)’ 만큼 중요한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공은 불교 가르침의 핵심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불교 교리의 핵심 개념인 공을 설명한 금강경에는 정작 공이란 말은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만사천 경전 가운데 공의 의미를 그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없습니다. 공이란 무엇인가요?

불교에서는 아공(我空), 법공(法空)을 느끼는 것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無智)라고 합

니다. 참다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망언을 하지만 지혜로서 몸뚱이를 관찰하건대 실로 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를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서 관찰해 본다 하더라도, 마침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머리에 있습니까, 발에 있습니까, 피부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나는 없습니다.

일체만유(一切萬有)는 중생의 업력으로 해서, 잠시 공의 덩어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세에 닦고 지어 쌓아 내려온 업력이 있고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지금도 업력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업력이라는 것은 중생이 행동하는 기운입니다. 생각하면 그것이 남아 있고, 말하면 말하는 기운이 남아 있고, 그러한 기운을 업력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거품이나 마찬가지로 텅 빈 공의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업력이 가짜로 잠깐 동안 텅 빈 공의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못 인연 따라서 생겨났으니, 그를 다스리고 주재하는 주인이 없는 것이 마치 빈 정자에 머문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지금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업력이 인연 따라 일어나서 된 하나의 빈 집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생의 소견으로 내 몸이라고 집착할 뿐입니다. 중생이 업력으로 해서 가짜로 잠깐 공의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현대과학에서 말할 때 산소나 수소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하나가 빙빙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일체 존재의 가장 근원이 원자입니다. 일체 만유는 그런 원자가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하나의 원소가 되고 또는 분자가 되고 해서 물질이 이루어집니다. 사람 몸이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실은, 공 무더기가 모이고 모여서 일체만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하나 되면 수소이고, 여덟 되면 산소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경전에 과학도 무엇도 없을 때에 공취(空聚)라는 이런 말

씀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야말로 감탄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중생이나 우리 사람이 어디에가 있는가 하면, 중생의 업력을 따라 갑니다. 가령 죽어지면 몸은 다 죽어버리지만 에너지는 납니다. 말하자면 우리 식(識) 곧, 업식(業識)만 남아 그것이 자라서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空)을 모아서 산소도 되고, 수소도 되고, 각 원소들이 모여서 몸뚱이를 구성하게 됩니다. 중생의 그런 업력이 잠시간 텅 비어 있는 공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어떤 것인가 하면 무유재주(無有主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스리고 주재(主宰)할만한, 내 것이라고 고집할만한 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여숙공정(如宿空亭), 빈 정자에 머문 것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실은 주인이 없는 것인데 망상(妄想)으로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 집착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연 따라 모였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다시 흩어져 버리는 잠깐 동안의 머무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지혜로서 관찰하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이러한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시대별로 본 승탑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연곡사 복승탑(국보 제54호)

신라시대 승탑

일반적으로 승탑은 불탑에 비하여 그 크기가 작은 편으로 구마라습의 사리탑은 높이가 2.23m, 1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승탑은 불탑을 축소한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승탑은 석등을 기본 모델로 하여 발전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부도의 형태는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석종형(石鐘形)·방형(方形) 등의 양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팔각원당형승탑은 기단부의 하대석(下臺石)·중대석(中臺石)·상대석(上臺石)이 팔각형이고, 탑신부의 몸돌과 지붕돌 또한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가장 오래된 팔각원당형승탑은 신라 문성왕 6년(844)에 만들어진 전(傳) 흥법사 염거화상탑(廉巨和尚塔)으로 국보 제104호로 지정되었다.

염거화상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宗祖)로 추앙받고 있는 도의국사의 제자이며,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의 2대 조사이다. 원래 승탑은 강원도 원주의 흥법사에 있었다고 전해지나 확실치 않으며, 일제강점기에 탑골공원 등 여러 곳으로 옮겨졌다가 한때 경복궁에 자리했으나 현재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있다. 염거화상탑은 기단부의 하대석에 사자(獅子)를 도드라지게 새겼고, 중대석에는

옴폭하게 새긴 안상(眼象) 안에 향로를 새겼으며, 2단으로 된 상대석은 아랫단에 연꽃을 두 줄로 돌리고 윗단에는 안상 안에 여러 조각을 새겨 장식하였다. 사리를 봉안한 탑신부의 몸돌에는 팔각의 각 면마다 사천왕상과 문짝문양을 번갈아 가며 배치하여 입체감을 살렸으며, 지붕돌은 실제기와지붕처럼 경사면에 깊게 패인 기왓골과 기와 끝에 새겨진 막새기와, 그리고 서까래 등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염거화상탑 안에서 발견된 금동탑지(金銅塔誌)를 통해 통일신라 문성왕 6년(844)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현존하는 사리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통일신라 및 고려 초기에 걸쳐 제작되었던 승탑의 기본 모델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가지산문의 2대 조사인 염거화상탑을 비롯하여 동리산문 화순 쌍봉사의 철감선사탑, 실상산문 남원 실상사의 증각대사용료탑과 수철화상능가보월탑, 가지산문 장흥 보림사의 보조선사창성탑, 회양산문 문경 봉암사의 지증대사적조탑, 하동 쌍계사 부도, 양양의 선림원지부도, 구례 연곡사의 동부도 등은 비교적 조성연대가 확실한 통일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팔각원당형의 승탑이다.

고려시대 승탑

9세기 말에 이르러 신라의 팔각원당형승탑

은 부분적인 양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로, 기단부의 중대석이 기둥 모양으로 길쭉하게 하거나 북을 옆으로 놓혀놓은 것과 같이 배가 불룩하게 나온 모습을 하기도 하고, 중대석에 구름과 용무늬를 새겨 넣기도 하였다.

또한 하대석을 넓게 하여 구름과 용무늬를 입체적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석 위의 탑신 받침을 생략하기도 하고 지붕의 경사를 심하게 한 반면에 처마 끝의 귀꽃 장식은 하늘 높이 치솟은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고려 전기의 승탑은 기본적으로 신라의 팔각원당형 승탑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장중하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 새로 개국한 고려왕조의 진취적인 기상이 투영된 시대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들어 승탑이 널리 조성되면서 그 크기가 대체로 작아지고 폭이 길쭉해지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 후기의 승탑은 짜임새가 간단해지면서 장중하고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단순한 장식과 직선화한 처마, 고깔모양으로 오뚝한 지붕 등으로 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단순해져 딱딱한 느낌을 주고 있다.

9세기 말엽 고려 초기의 승탑을 살펴보면,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高達寺址)의 전

(傳) 원감국사탑과 강원도 양양 선림원지(禪林院址) 승탑(보물 제447호) 등에서는 높아진 중대석에 운룡(雲龍)무늬를 장식하고 있고, 전남 장흥 보림사(寶林寺) 보조선사창성탑(普照禪師彰聖塔·보물 제157호)은 북을 옆으로 놓혀 배가 불룩한 중대석을 만드는 등 중대석의 장식과 모습에 변화를 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흥법사진공대사탑(興法寺眞空大師塔·보물 제365호)과 여주 고달사 원종대사혜진탑(元宗大師慧眞塔·보물 제7호) 등에서는 중대석에 운룡무늬를 장식하고 있어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의 전(傳) 원감국사탑과 양양 선림원지 승탑의 중대석 장식기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고려 초기의 승탑은 처마 밑이 보일 정도로 추녀 끝이 치솟고 있어 신라 하대의 승탑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 공주의 갑사 승탑, 충북 영동의 영국사 승탑, 강원도 명주의 굴산사지 승탑, 경북 군위 인각사의 보각국사 승탑 등 고려 중기 이후의 일반적인 승탑에서는 크기가 작아지고 짜임새와 장식이 간략해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서산 보원사지의 법인국사 보승탑, 보림사 서승탑 등에서는 승탑의 폭이 좁고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 포항 보경사 승탑처럼 아주 늘썸한 승탑도 조성되었다.

조선시대 승탑

고려시대의 일반형 승탑을 계승한 조선시대의 일반형 승탑은 탑신이 북을 눌린 모양으로 불룩해지고 기단부와 지붕도 두툼해지면서 조각장식도 둔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석종형 승탑이 일반화되었다. 불교가 국교였던 신라와 고려에 비해 승유억불정책을 펼쳤던 조선시대에 역설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승탑이 조성되었다.

승탑은 고승대덕에 한하여 허용되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화로 소실되었던 가람의 중창복원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찰의 주지들에게 허용됨으로서 비교적 제작이 용이한 석종형 승탑이 널리 조성되었다.

조선 전기의 일반형 승탑으로는 충북 주원 청룡사의 보각국사 정혜원용탑(국보 제197호)를 들 수 있는데 팔각원당형 승탑을 따르면서 새로운 양식이 도입된 승탑이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의 무학대사탑(보물 제388호)은 보각국사 정혜원용탑에서 발전된 양식으로 탑신부에 운룡무늬가



상원사 한암 대종사 부도

둘러져 있고 처마에는 용머리형 귀꽃장식을 하였으며, 다른 승탑에서는 볼 수 없는 탑 주위에 팔각난간을 하고 있어 조선시대 승탑의 새로운 구성법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석종형 승탑의 전성기였다. 전통적인 팔각당형 승탑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석종형의 승탑들은 도처의 사찰에서 수없이 조성되면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석종형 승탑들은 크기가 작고 낮은 기단위에 단순한 석종형 탑신을 올리고, 상륜은 탑신과 하나로 만들거나 팔각형 지붕돌을 얹는 것으로 마감하는 등 후대로 가면서 형식적 명맥만 유지하였다.

법왕사의 산증인 백대행심 신도회 고문 비슬산 기슭에 심은 신앙심

승혜스님 / 법왕사



산골 토굴, 삼월의 봄바람은 몸살을 앓습니다. 꽃샘추위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시샘하는 정도의 바람은 아닙니다. 가벼운 것은 모조리 날리겠다는 듯 기세등등한 바람이 종일 야단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산속의 유별난 봄바람은 밤에도 계속되어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내든지, 한 밤중에 집 뒤에서 무엇이 나뿔굴어지는 희한한 소리에 잠을 깨면 무섭다는 생각보다 시끄럽다는 기분이 먼저 듭니다.

그런 날은 부처님의 시를 가만히 읊조려봅니다. 스스로를 삼가는 사람은 홀륭하여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가슴을 향해 창이 던져질지라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간으로서 물질적 집착, 느낌, 생각, 결합, 식별의 다섯 가지 작용을 '나'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뜻을 새깁니다.

부처님의 십대제자들께서 깨달음을 노래한 시, 오도송에서 존자 수부티(수보리)의 노래가 마음에 닿습니다.

〈내 작은 움막은 지붕이 덮였다. 그래서 바람이 들지 않아 나는 즐겁다. 천신이며, 즐겁게 비를 내려라. 내 마음은 삼매에 깊게 들었다. 나는 해탈했다. 나는 언제나 열심히 살아간다. 천신이며, 즐겁게 비를 내려라.〉[쿠다카(小) 니카야 제8 장로 오도송 (Thera - gatha)]

바른 삼매(正定)에 든 아라한 성자의 행복

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비슬산 법왕사가 창건되던 때부터 인연을 맺어 법왕사와 함께 한 세월이 25년 가깝다는 백대행심 신도님도 그렇습니다. 법왕사와 같이 첫걸음을 내딛고 법왕사가 걸어온 길을 다 지켜보았다는 백대행심 신도님, 삶을 옹골차게 꾸린, 참으로 곱게 연세가 드신 모습은 부처님께 대한 신앙심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법왕사와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백대행심 지장회 고문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대구 앞산에 위치한 고찰, 은적사를 찾았던 것은 동서의 권유였습니다. 남편과 여섯 명의 자녀와 시동생, 조카까지 뒷바라지 하느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갖게 되어서 이전부터 늘 마음에 모시던 부처님이기에 불자가 되기 위해서 안일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일사가 위치한 곳이 높은 산이라 자주 찾지 못했고 더구나 몸살이 나서 고심하던 차에 동서가 은적사를 소개하더군요.

은적사는 후삼국 말에 후백제가 신라를 침공하여 경애왕이 고려 태조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전쟁 중에 왕건이 몸을 숨겼던 곳이기에 은적사라고 합니다. 왕건을 붙잡으려고 온 이가 동굴 속에 거미줄이 엉킨 것을 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판단하

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은적사에서 현재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실상스님께서는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시고 은적사 청년회 법사로 활동하셨어요. 일본 유학을 위해서 일어를 배우시고 새벽에 강의를 듣고 은적사에 올라오셨는데 그때도 정말 열정적인 스님이셨지요. 똑바른 자세로 몰두하여 법문을 듣던 실상스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삼년 정도 은적사와 인연이 되었다가 법왕사 창건멤버로 실상 주지스님을 따라 왔습니다.

그때 살던 집이 마침 법왕사와 가까웠습니다. 법왕사 곁을 흐르는 신천 돌다리를 건너면 곧 집이었기에 하루에도 두세 차례 법왕사를 왕래했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집안 일을 해놓고 절에 오면 행사를 마치고 점심시간 무렵에 집으로 갔습니다. 퇴직한 남편 점심밥상을 차려놓고 다시 법왕사에 왔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법왕사에서 기도 정진한 덕분에 가족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육남매가 모두 착하고 성실합니다. 속 썩히는 일 없이 진학시험은 물론이고 각자의 길을 순조롭게 가면서 취직까지 무난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니까 신심도 절로 나더군요. 시어른께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시

기도 했지만 교육열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 옛날에 시동생은 고려대학교 출신이고 우리 집 거사 삼형제가 모두 고학력이지요. 가족들이 생활에 만족할 줄 알고 한 평생 어려운 고비가 없이 평탄하게 산 것은 정말 부처님 가피로 여깁니다.

법왕사가 창건되던 당시, 처음에는 신장회를 창립하여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장회장 소임을 거친 후에 지금은 지장회 고문역에 이름을 올렸지요. 예전에는 이사를 할 기회가 생겼을 때도 법왕사와 멀리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법왕사와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지요. 집 바로 옆에 큰 절이 보였지만 어쩐지 가고 싶지 않았고 내 마음 변하지 않고 긴 세월동안 법왕사와 인연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주지스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세 번 오셔서 염불하시고 입관도 주지스님께서 주관하셨어요. 그 고마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월 따라서 법왕사 오솔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온 정성으로 불사를 하신 주지스님 덕분에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주지스님이니깐 이렇게 밀고나가는 것입니다. 맨발로 뛰어나다니면서 불사를 하신 실상 주지스님께서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서울로 거처를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님, 저희 집 근처에도 절이 있어요. 여기 오셔서 다니시면 되잖아요.” 하고 권유하지만 대구를 떠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대구에 사는 딸들이 가끔 돌봐주니까 생활은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젊어 보인다고요? 주름이 적은 비법을 묻네요. 그런 비결은 없습니다. 몸무게가 항상 변하지 않고 건강한 것은 생활이 규칙적이라 그럴까요?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때에 합니다. 군것질은 안 합니다. 그리고 법

왕사 초창기 신도들 6명이 자주 모임을 갖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같이 점심도 먹고 백화점 아이쇼핑을 해요.

금강경 독송을 주로 합니다.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을 찾다가 요즘 아미타불 정근을 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 것에 더하여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도 이생처럼 좋은 인연을 맺고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여 잘 살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 화 | 053-766-3747, 팩스 053-767-6095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마음을 여는 절 서산 상왕산 개심사

개심사를 오르는 돌계단이 시작되는 곳에는 ‘세심동(洗心洞)’과 ‘개심사(開心寺)’라는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 반긴다. 마음을 씻는 골짜기고 마음을 여는 절이다. 울창한 숲과 돌계단이 어우러진 멋진 산길을 따라 오르면 개심사가 세속에 지친 나그네를 반갑게 맞아준다. 충남 서산에 있는 개심사는 백제시대 때 세워졌지만, 지금의 개심사로 모습을 갖춘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이다.



개심사는 가야산 줄기에 있는 상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이다. 개심사 창건과 연혁은 현재 전해지는 문헌이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다만 개심사에 전해지는 사적기에 의하면 백제 의자왕 14년(654)에 혜감국사가 창건하여 개원사(開元寺)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그후 고려 충정왕 2년(1350)에 처능대사가 중건한 뒤 개심사로 불렸다.

개심사 입구 돌계단을 오르면 직사각형의 연못이 보인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상왕산은 코끼리의 모양으로, 부처를 상징하는 코끼리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연못을 만들었다고 한다. 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해탈문에 이르렀다. 해탈문 왼쪽에는 안양루와 범종각이 있다.

안양루의 ‘상왕산 개심사(象王山開心寺)’라는 현판은 유명한 서화가인 혜강 김규진이 썼다. 안양루는 불교의 의식법구인 법고와 목어·운판이 보관되어 있다. ‘안양(安養)’이란 ‘극락세계’라는 뜻이다. 안에는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本生譚)을 주제로 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절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웅보전과 요사채인 심검당은 조선 초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의 건축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대웅전의 기단은 백제 때 것이지만 건물



심검당 기둥

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것이다. 보물 제143호이다. 1941년 대웅전을 해체, 수리할 때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현재의 대웅전은 성종 6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9년 뒤인 성종 15년(1484)에 건축되었다. 기단은 창건당시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는 화강석이다. 대웅전은 맞배지붕 건물이다. 밖에서 보면 기둥 사이로 공포가 놓인 다포계 건물이나 안쪽에는 기둥 위에만 공포가 놓인 주심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건축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심사 대웅전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 주심포양식 건물인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제13호)과 대비가 되는 중요한 건물로 목조건축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웅전 안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아미타삼존불상(보물 제1619호)이 있다.

대웅전 앞마당에 있는 오층석탑은 보물 제143호로 지정되어 있다. 단순하고 안정감이 있는 탑신에는 낙수면(落水面)이 거의 없는 옥개석(屋蓋石)이 올려져 있고, 기단에는 아래쪽을 향해 핀 연꽃 모양의 복



범종각

련(伏蓮)이 새겨져 있다.

명부전은 대웅전을 바라보고 우측에 건립된 조선시대의 목조 건물로 개심사에서 대웅전 다음으로 중요한 건물이다. 조선 고종 26년(1889)에 죽포(竹圃) 김설제(金設濟)가 작성한 개심사 중창 수리기에 ‘순치삼년명부전신설’이란 기록으로 보아 조선 인조 24년(1646)에 신축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194호로 지정되었다.

심검당은 굽은 나무를 그대로 건물에 사용해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매우 독특한 건물이다. 건물 수리시 발견된 상량문

에 의하면, 심검당은 개심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보물 제1264호인 영산회괘불탱은 조선 영조 48년(1772)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영산회상도로 임금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그려진 것이다. 주로 붉은색과 녹색으로 아름답고 복잡한 문양을 그려 매우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신체 비례와 복잡한 문양에서 18세기 후기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보물 제1765호)는 1676년에 화승 일호(一浩)가 그



일주문

린 것으로,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도량 장엄용으로 조성한 불화이다. 현존하는 도량장엄용 불화 가운데에서 조성 연대가 오래 된 것 중에 하나로 작품성도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오방오제위도와 사직사자도는 임진왜란 이후 크게 유행한 수륙재, 영산재 등에 사용된 불화로서 대형 의식 불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보물 제1766호)와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19호) 등 문화재급 자료들이 즐비하다.

‘내포문화숲길’은 개심사가 주는 또 하나의 덩이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서산, 당

진, 홍성군, 예산군 등 내포지역에는 많은 불교 성지들과 천주교 성지 등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다. 이런 문화유산과 옛길과 마을길, 숲길 등을 연결한 것이 바로 내포문화숲길이다.

개심사 가는 길

승용차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에서 내려 32번 국도를 타고 운산 소재지에서 647번 지방도로를 따라 가면 개심사가 나온다.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IC에서 내려 아산, 예산, 덕산, 해미를 거쳐 운산방향으로 가면 개심사가 나온다.

법왕사 소식

제28회 백고좌법회 입재



법왕사에서 올해 계획한 세 차례의 백고좌법회 가운데 마지막 회인 제28회 백고좌법회가 지난 9월 13일 입재하여 100일 동안의 긴 여정을 시작하여 오는 12월 21일 회향합니다.

첫날 입재법회에는 2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주 천제사 한주 연담스님께서 법문하셨습니다.

이번 법회 중간에도 불명 보살게 수지법회, 삼사순례법회, 방생법회를 비롯해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열릴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많은 동참 바랍니다. 회향법회는 순천 송광사 율원장 지현스님께서 보살게 수계법회를 집전하십니다.

법왕사 제44회 일천명 초청 경로잔치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11일 법왕사 복지관 전시실에서 제44회 1천명 초청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경로법회를 시작으로 12시 점심공양, 오후 1시 축하 한마당 순서로 펼쳐지는 이번 경로잔치는 특별히 전기공사업협회에서 후원하여 예년에 비해 더욱 푸짐한 잔치상을 차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갑오년 윤9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갑오년 윤9월을 맞이하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기도법회는 9월 30일 입재하여 11월 17일 회향합니다.

생전예수재란 윤달이 드는 해에 사후에 치를 49재를 살아 생전에 미리 닦는 법회로 크나큰 공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교의 고유한 의식입니다.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 추진중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의 단청공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삼신불 봉안 불사를 봉행합니다.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 등 삼신불을 봉안하는 이번 불사는 불상의 좌대가 60cm, 높이가 2m10cm에 이르는 큰 불상으로 천장 높이 9m에 이르는 대적광전의 주불로 모시게 됩니다. 한편 이번 불사에서 설판제작에는 100만원 이상, 개인은 10만원 이상의 불사를 모연하고 있으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사 소식

원공당 정무 대중사 3주기 추모음악회 봉행



원공당 정무 대중사 3주기 추모음악회가 오는 10월 17일 오후 6시 법왕문화회관 4층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노래하는 스님으로 이름 높은 심진 스님, 도신 스님, 상정 스님, 수월 비구니 스님이 출연하며 정무시 선생이 지휘하는 연합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깊어 가는 가을 밤, 법왕사 회주로서 불자들에게 큰 유덕을 끼친 큰스님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본받기 위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에는 많은 출연진들이 참여하여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할 것이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운불련 불자들 정기법회 봉행



운불련 소속 불자 3백여명은 지난 9월 22일 오후 2시 법왕사 종합복지관 만불전에서 이날 정기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이 법문하였는데 운불련 회원들은 이밖에도 매번 법회시 많이 참석하면서 보살게 수계법회 시에는 단체로 참여하여 법석을 채웠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100일 관음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5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100일 관음기도를 지난 8월 5일 입재하여 수능일인 11월 13일에 회향하는 일정으로 현재 봉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들은 영험 있는 기도도량인 법왕사에서 100일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원공당 정무 대중사 3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9월 26일 법왕사 회주 원공당 정무 대중사 3주기를 맞이하여 본당 각령전에서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큰 스님을 추모하고 유덕을 기렸습니다.

추석 합동차례 회향

법왕사에서는 올해 추석인 지난 9월 8일 평생위패를 모신 분 등 3백여위에 대해 추석 합동차례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차례에는 가정에서 차례를 올리기 힘들거나 여법한 불교식 절차로 차례를 올리고 싶은 불자들이 많이 동참하여 불교식 차례절차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법왕사 소식

송광사 등 삼사순례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19일 일요일에 순천 송광사, 보성 봉갑사, 화순 쌍봉사로 삼사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승보사찰로 16분의 국사를 배출한 도량이고, 봉갑사는 영암 도갑사, 영광 불갑사와 함께 호남의 삼갑사로 불리며, 쌍봉사는 독특한 탑 형식의 법당으로 이름난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동참금은 35,000원이며 당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복지관 정원에 수석정원 완공



법왕사 복지관 앞 수석정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법왕사에서는 주변에서 수집한 각종 수석으로 복지관 광장에 아담한 수석정원을 조성하여 도량의 분위기를 한층 더 정겹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수석정원은 불자들이 기증하거나 직접 수집한 수석과 각종 화초들로 꾸며서 해오름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 앞으로도 수석정원은 계속 꾸며갈 예정이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08 국화 화분 부처님께 공양



법왕사에서는 제28회 백고좌법회 입재 기념으로 108분의 국화 화분을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렸습니다. 제철을 맞은 국화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찬탄하는 꽃 공양의 하나로 신심 깊은 불자 108분이 1분 1만2천원의 보시금으로 공양하였습니다.

법왕사 경내 은행털기



법왕사 경내에 심은 은행나무에 열매가 익어 은행털기가 한창입니다. 은행나무는 시원한 그늘과 빛깔 좋은 단풍뿐만 아니라 귀한 약재로도 쓰이는 은행 열매를 주는 소중한 나무입니다.

추석 관계로 제17차 천일기도는 9월 11일 지장재일에 봉행하였습니다. 18차 기도도 10월 24일, 윤9월 1일에 봉행합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김복남 김태남 이경진 홍이선

법왕사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보도움 주신 분

백대행심 50부 권마하연 100부 우연희 100부
백법성행 50부 김분용 50부 관음희 100부
지장희 100부 최태희 50부 신장희 200부
이상호 50부 합창단 100부 이임숙 2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정광춘 남기석 사공관 유인종 유용재
심도연 김주현 사공순옥 이수월심 오복희
최태희 정광춘 심보현 은이재연 영가

◎ 과일공양 올리신 분

간음희 일동 황청순 심영호 박대희 배해동
최옥남 세광하이테크(조하루 과일공양 일체)
박동근

◎ 떡공양 올리신 분

구실상화 김기수 관음희 일동 장재혁 장재봉
시보민 이세정 심재용 구제철 강지원
강석운 배해동 백인혁 은송국자영가 정시영
권경오 이재학 양봉를 권숙자 양혜영
권보형 이재옥 심은화 박영민 김임태

◎ 꽃공양 올리신 분

은김태조 영가 은조을연 영가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정시영 전재술 김호연 서정훈 이원석
김상수 이상열 이창식 최태희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불기 불사 올리신 분

박영근 정광춘

◎ 상들리아 불사 올리신 분

박중환

◎ 원불 봉안 올리신 분

이 현(지장보살)

◎ 삼신불 불사 올리신 분

김옥출 신현종 이상태 임성덕
김태윤 정연직 정연국 정민경

◎ 범종불사 올리신 분

이동학 이호형

불사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법한 도량을 장엄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신지원 이광진 이정상 전옥남
한진기사식당 세광하이테크

왕생극락하옵소서

- ◆ 은유청일 영가님의 막재가 9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은권외경 영가님의 초재가 9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은박정분 영가님의 초재가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은이종열 영가님의 막재가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은장세윤 영가님의 초재가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은이재연 영가님의 초재가 9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은이대우 영가님의 기제사가 9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 은심학순 영가님의 초재가 9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은김일봉 영가님의 초재가 9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은송국자 영가님의 막재가 9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은조을연 영가님의 막재가 9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10월 11일(토) : 경로잔치
- 10월 17일(금) : 정무대중사 추모 음악회

해오름 소식



놀이치료 프로그램

언제나 활기찬 놀이치료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재미 있는 이야기 보따리와 아기자기한 노래와 율동 등으로 지루할 틈이 없어 어르신들께서 특히 더 좋아하십니다.



자원봉사자 음악봉사

매달 2회 어르신들을 위해 자청해 음악봉사를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님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마이크를 잡고 손뼉 치며 노래할 수 있어 더욱 흥겨운 시간입니다.



추석 맞이 송편만들기

추석을 맞이하여 해오름 요양원 가족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송편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반죽도 하고 송편도 예쁘게 빚으면서 옛 추억을 되살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김명희(놀이치료), 최은선(미술치료)

| 단체 정기봉사자 |

참사랑문화봉사단써포터즈봉사단
이 · 미용봉사단

| 학생 정기봉사자 |

장임영, 이가영, 김지현, 최준혁, 김명지,
김종오

제2해오름요양원·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 25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립니다)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8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이옥자 5천원	최창숙 5천원	이정옥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금희 5천원	조정자 5천원
장성규 5천원	정무시 1만원	김정임 1만원
김용태 1만원	김정임 1만원	이임숙 2만원
이명희 1만원	김미자 1만원	권숙자 1만원
권순영 1만원	조인성 5천원	도화순 5천원
박경자 5천원	장재혁 5천원	현영희 1만원
권순철 1만원	강영도 2만원	양봉훈 1만원
박희조 5천원	한유자 5천원	심규암 5천원
박재기 5천원	전영희 5천원	이재봉 5천원
김정자 5천원	김정규 5천원	김유리 1만원
함민주 1만원	김기수 2만원	최경미 1만원
박종규 1만원	엄세비 1만원	구정대 2만원
권오국 1만원	정명선 2만원	한희록 1만원
김순태 1만원	윤정연 1만원	최영희 1만원
권영희 1만원	김민주 1만원	신수희 1만원
박병준 1만원	권순미 1만원	금강사 2만원
황상옥 2만원	서치경 1만원	서규하 2만원
석종순 1만원	최은순 1만원	이채원 1만원
김대현 5천원	최윤희 5천원	채수인 5천원
신충호 5천원	김경호 1만원	김명옥 1만원
권명진 1만원	이정화 1만원	박성림 1만원
이현기 1만원	진봉희 1만원	김은주 1만원
백옥수 5천원	정운현 5천원	이정순 5천원
김상철 5천원	신임선 5천원	신진무 1만원
박재후 1만원	황학영 1만원	박정목 1만원
정민주 5천원	허유미 5천원	이호동 5천원
황지영 5천원	신수희 1만원	권기철 1만원
김미정 1만원	우포정사 1만원	이은경 1만원
장호주 5천원	정옥수 5천원	박성숙 5천원
최경순 2만원	장성용 1만원	남기웅 1만원
권봉자 3만원	정대영 1만원	강유미 2만원
성외련 2만원	고연숙 1만원	용미관음사 3만원
손말두 5천원	이정희 5천원	김진현 5천원
정선옥 5천원	이전희 5천원	박동규 5천원
박치민 5천원	정활수 3만원	김경환 1만원
신진숙 1만원	임상덕 1만원	김우영 1만원
권영희 1만원	이성환 5천원	김임태 5천원

시명스님 5천원	신임선 5천원	박귀분 1만원
반통사 1만원	정시영 1만원	성승길 1만원
정경숙 1만원	권보형 2만원	김형택 2만원
김원형 3만원	전행연 1만원	홍새미 1만원
정경석 2만원	김예분 1만원	장호식 2만원
조규인 1만원	김영일 1만원	신세호 1만원
사공관 2만원	정옥선 1만원	임익균 1만원
이승미 1만원	박순영 5천원	채옥연 5천원
홍유식 5천원	윤광숙 5천원	심종순 5천원
김진성 1만원	이용옥 1만원	배수현 2만원
김외환 1만원	신돈식 1만원	김예분 1만원
한구매 5천원	박순남 5천원	여택동 5천원
정연이 5천원	이종희 5천원	강선옥 1만원
박용관 1만원	오금옥 1만원	안경순 1만원
이인순 5천원	김영희 5천원	박대희 5천원
김봉숙 5천원	정순옥 5천원	강심규 5천원
오난옥 5천원	김무용 5천원	박태숙 5천원
강소남 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이남희 1만원
안상준 2만원	이점례 1만원	신화식 1만원
이은주 1만원	이병희 1만원	민주현 1만원
문정애 2만원	김순란 3만원	조창신 1만원
류운만 1만원	김유진 1만원	황준원 1만원
유명옥 1만원	조영석 1만원	박학순 1만원
김수라 1만원	최분규 1만원	노귀자 5천원
신구자 5천원	양나영 5천원	신혜경 5천원
안명희 1만원	황미선 2만원	현인숙 1만원
노수정 1만원	권계화 1만원	장우성 1만원
김정순 3만원	박종성 1만원	박경훈 1만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5천원	이은희 5천원	이강복 1만원
---------	---------	---------

합계 2,175,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88,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543,800원
- 의료비	18,000원
- 요양원 필요물품구입	250,000원
- 우편배송비	4,000원

8월 총 사용내역 905,80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이시종 어르신 보호자 : 포도 3box두유 3box
한울식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135개
남분한 어르신 보호자 : 거봉 1box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배 1box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참외 1box 박카스 1box
장태순 어르신 보호자 : 음료수 1box
유세묘 어르신 보호자 : 현금 50,000원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음료수 1box
차수학 어르신 보호자 : 포도 1box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box 비피더스 10개
박수연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box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box 요구르트 30개
박정록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15개 요구르트 30개
이선희 어르신 보호자 : 사과 1box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box
정잠분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포도 1box
신장희 : 참기름 3만원 상당
김명희 자원봉사자 : 롤케이크 3개
장어와미꾸라지 : 추어탕 40인분
김순란 : 과일 2만원 상당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 상당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최춘가, 이해남, 김귀순 어르신
신규 입사자 : 김미희, 최승임, 김성의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도로 51길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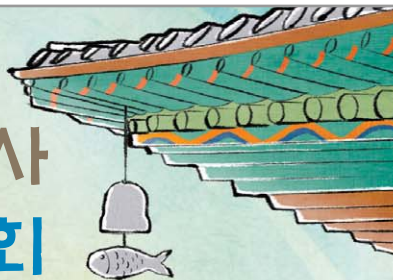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좌 5,000원부터)

원공당 정무 대종사 3주기 추모 음악회



원공당 정무 대종사 3주기 추모음악회가 열립니다. 불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 큰스님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본받기 위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사회 효민스님

일 시 | 2014년 10월 17일(금) 오후 7시

장 소 | 법왕사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대구불교방송 '아름다운 만남 효민입니다' MC

심진스님



'사는 일 눈물 나면'
등 4집 발표

도신스님



서산 서광사 주지

상정스님



대구 즐거운절 주지

수월스님



'물같이 바람같이'
등 음반 발표

정무시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

연합합창단



권민희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선조 및 병창전수자

법왕사 1인 1원불을 모십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인 비슬산 줄기에 자리잡은 법왕사는 비록 창건 역사는 짧지만 삼한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그 정통을 이어온 신라 불교의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의 성지인 영남, 그 가운데서도 팔공산과 쌍벽을 이루는 비슬산의 정기는 영남 불교의 거대한 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역사성에 걸맞게 법왕사는 1백분의 스님을 모시고 1백일 동안 끊임없이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를 28회나 봉행하여 법문과 기도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세계최대 불교복지도량 건립의 서원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하여 현재 5천평 대지 위에 연건평 1천평, 4층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4층에는 대적광전을, 3층에는 만불전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적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시는 공덕은 수미산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만불전에는 법왕사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일인 일원불을 모실 수 있도록 원불을 모시고 있으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달의 원불 모신 분

이계철 영가(지장보살)	권을필 영가(지장보살)
유청일 영가(지장보살)	권재우(관세음보살)
수공 영가(지장보살)	일경 영가(지장보살)
이광선 영가(지장보살)	전명오 영가(아미타불)
고태선(아미타불)	김손분(아미타불)
전순환(지장보살)	장삼술(관세음보살)
엔디장(관세음보살)	연지 영가(석가모니불)
연성 영가(아미타불)	연화 영가(지장보살)
법륜 영가(대일여래불)	묘길 영가(관세음보살)
이상호(관세음보살)	이현(지장보살)



대한불교 법왕사
조계종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sa.or.kr

갑오년 윤9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예수재는 죽은 후에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재를 말합니다. 즉, 중생이 살아 있을 때 사후를 위하여 미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왕생극락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윤달이 드는 해에 지내는데 올해에는 윤9월이 들어 법왕사에서는 여법한 예수재를 봉행하려고 합니다. 불자들에게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쌓아 사후 왕생극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 재 : 9월 30일(음. 9월 7일) ■ 회 향 : 11월 17일(음. 윤9월 25일)
- 동 참 금 : 설판 대시주자 20만원 ■ 생전예수재 : 1인당 3만원
- 영가천도금 : 위패 1위당 5천원

▷ 49재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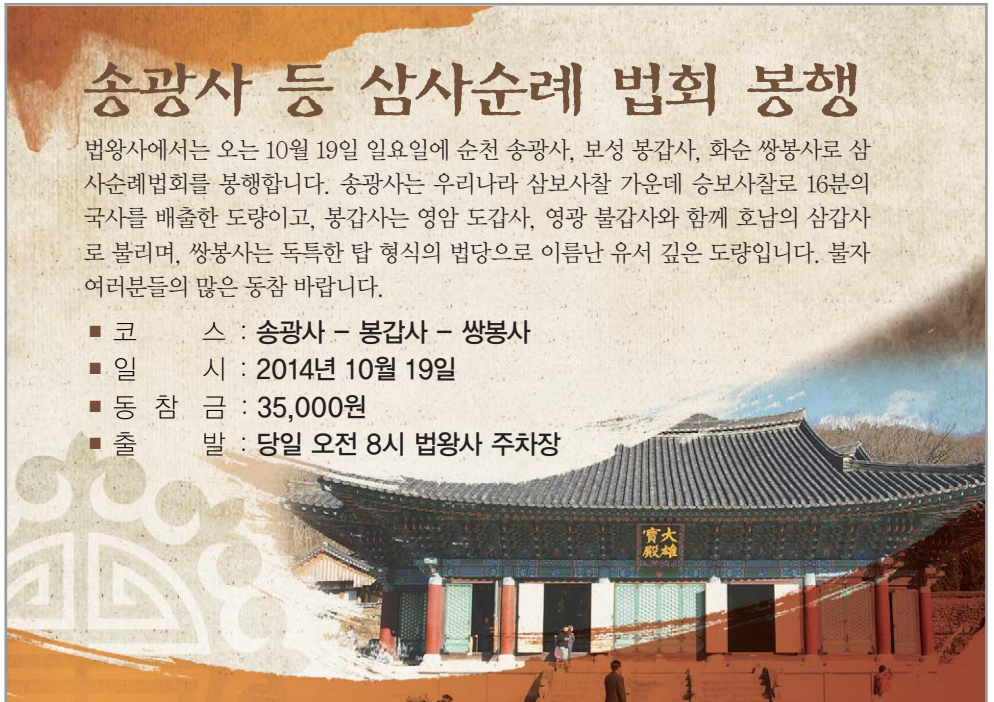
재 일	일 자	재 일	일 자
입재	9월 30일 (음. 9월 7일)	사재	10월 27일 (음 윤9월 4일)
초재	10월 6일 (음. 9월 13일)	오재	11월 3일 (음 윤9월 11일)
이재	10월 13일 (음. 9월 20일)	육재	11월 10일 (음 윤9월 18일)
삼재	10월 20일 (음. 9월 27일)	막재	11월 17일 (음 윤9월 25일)



송광사 등 삼사순례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19일 일요일에 순천 송광사, 보성 봉갑사, 화순 쌍봉사로 삼사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승보사찰로 16분의 국사를 배출한 도량이고, 봉갑사는 영암 도갑사, 영광 불갑사와 함께 호남의 삼갑사로 불리며, 쌍봉사는 독특한 탑 형식의 법당으로 이름난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코 스 : 송광사 - 봉갑사 - 쌍봉사
- 일 시 : 2014년 10월 19일
- 동 참 금 : 35,000원
- 출 발 : 당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지회 후원

법왕사 제44회 일천명 초청 경로잔치

- ◎ 일시 : 10월 11일(토)
- ◎ 장소 : 복지관 지하 1층 공양간

- 1부 경 로 법 회 : 오전 11시 ~ 12시
- 2부 점 심 공 양 : 오후 12시 ~ 1시
- 3부 축하 한마당 : 오후 1시 ~ 3시

법왕사에서는 오는 10월 11일(토) 법왕사 복지관 공양간에서 제44회 일천명 초청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경로법회를 시작으로 12시 점심공양, 오후 1시 축하 한마당 순서로 펼쳐지는 이번 경로잔치는 특별히 전기공사협회에서 후원하여 예년에 비해 더욱 푸짐한 잔칫상을 차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국민 고품격 전력산업의 리더

회원 중심의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업법에 의거, 등록 기준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에 등록한 업체들의 모임으로, 위험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기공사에 있어 안전하고 적절한 시공을 하며, 법에서 정한 하자 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지회는 550여 회원사들의 모임으로 정안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매년 상반기에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연말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 귀감이 되는 모임입니다.



회장 정안식



부회장 최형동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지회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89, 4층(신천동) ☎053)353-9001~2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천일기도회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후 2시~4시까지 주지스님 집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2014년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세번째 법회인 제28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 27일차
10월 9일

대주 스님
대륜사 주지



● 29일차
10월 11일

정원스님
봉선사 능엄학림



● 36일차
10월 18일

지운스님
자비선사 회주



● 회향
12월 21일

지현스님
순천 송광사 율원장

- ◆ 일시 : 2014년 9월 13일 ~ 12월 21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 장소 : 법왕사 4층 대적광전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9일차	10월 1일 困	효상스님	가창 선홍사 주지	28일차	10월 10일 畵	마성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20일차	10월 2일 困	정현스님	여수 지장대사 주지	29일차	10월 11일 田	정원스님	봉선사 능엄학림
21일차	10월 3일 畵	자광스님	대구 관오사 회주	30일차	10월 12일 畵	현각스님	성불원장
22일차	10월 4일 田	승오스님	전 해인승가 대강사	31일차	10월 13일 畵	영인스님	여수 흥국사 부주지
23일차	10월 5일 畵	혜조스님	관음사 주지	32일차	10월 14일 困	정원스님	동국대 교수
24일차	10월 6일 畵	호민스님	청수사 주지	33일차	10월 15일 畵	무불스님	용산사 회주
25일차	10월 7일 困	보경스님	서울 법련사	34일차	10월 16일 困	태광스님	서울 동국대 강사
26일차	10월 8일 畵	혜능스님	직지사 강주	35일차	10월 17일 畵	경성스님	해인사 희랑대 주지
27일차	10월 9일 困	대주스님	대륜사 주지	36일차	10월 18일 田	지운스님	자비선사 회주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